

심의분과별 심의총평

■ 2024년 문학 창작산실 발표지원 심의 총평(시A)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문학 창작산실 발표지원(시A 분과)
- 회의일시 : 2024년 5월 7일(화) 11:00
- 회의장소 : 서울 예술가의집

본 사업에서 심의위원들은 우수 작가의 집필활동을 지원하고 발표 기회를 확대하고자 도입된 발표지원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숙지한 뒤 심의를 진행하였다. 사전전수 검토를 통한 심의위원들의 개별 예비 심사가 있었고 이후 최종 심사를 위한 논의가 대면으로 이뤄졌다. 심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출 작품의 무기명 심의(블라인드)로 진행되었고, 대면심의일까지 심의위원들 간 누구인지를 전혀 알 수 없었다. 이처럼 심사는 지역, 성별, 나이, 이름 등을 모르는 상태에서 작품만 면밀히 살펴보게 되므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있을 수 없는 심사로 진행됨을 재차 밝힌다. 그리고 심의 총평에 앞서, 심의자 이전에 창작자인 심의위원들이 소중한 미발표 원고를 먼저 읽게 된 것에 대해 감사와 송구한 마음이 있음을 밝히면서 창작에 대한 응원과 격려의 말씀도 올린다.

미발표 작품의 문학적 수준으로 평가한다는 사항은 간단치가 않은 조건이기에 작품에 따라 제각기 다른 차이가 노출되고 논의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견해 외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대면 심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별 작품에서 차이를 보였던 논의들도 합의점에 도달해 작품을 선정할 수 있었다.

여기서 제시되는 총평은 향후 지원사업의 신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한국 시단의 다채로운 방향성을 위해 몇 가지 주안점을 두고 논의되었던 것의 당부사항이다. 작품들을 심의하면서 두드러지게 발견되었던 사항들을 몇 가지로 추려본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현실 인식이 강하면서도 새로운 시적 창조를 위해 세련되게 구사되는 작품은 드문 상황이었으며, 사실주의 경향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상대적으로 일경향을 형성한 트렌디한(trendy) 시들은 상당수가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트렌디한 작품들 속에서 비슷한, 상투적인 느낌이 감지되기도 했다. 그럴듯한 이미지와 시상 전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한다. 다음으로는 토속적이거나 서정의 자연물을 다룬 작품들이다. 이러한 유형에서는 나만의 시로 잡아내는 것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셨으면 한다. 접근은 용이할 수 있지만 어떤 고정관념에 놓여있는지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작품들이 눈에 띄어 안타까웠다.

아울러 일부 작품이 주의 깊게 보아줄 정도로 좋았음에도 작품의 의미론적 긴장이 풀어져 수준 편차의 문제로 선정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시에 대한 진지함이 엿보이는 작품들은 많았으나 시는 진지함에 더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perspective)이 있어야 한다는 걸 다시금 상기해주셨으면 한다. 시적 진실이 살아 움직여 울동감을 만드는 것은 주제적 측면이 아니라 자신만의 결이라는 개성의 지점일 것이다. 또한 각주를 사용한 작품들도 많았는데, 이 역시 적극적인 탐구의 흔적으로서만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는 것도 부기한다.

이상으로 선정을 가늠하는 사유들을 마지막 소회로 밝힌다. 정형적 틀이 제거되고 몰아적 정서로서 개성으로 작품을 밀고 가는 시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자신의 목소리와 개성을 믿고 가는 것도 좋을 것이다. 문학 창작에 쏟는 관심과 애정에 대해 응원의 마음을 보태며 앞으로도 문학 창작산실 발표지원에 수준 높은 작품들이 답변되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시A분과 심의위원 일동

■ 2024년 문학 창작산실 발표지원 심의 총평(시B)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문학 창작산실 발표지원(시B 분과)
- 회의일시 : 2024년 5월 7일(화) 14:00
- 회의장소 : 서울 예술가의집

올해 3년차를 맞은 <문학 창작산실(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발표지원 사업>은, 현재 각 신청분야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의 미발표 작품 중 선정하여 온라인 발표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많은 우수 작가의 집필활동을 지원하고 발표 기회를 확대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는 본 사업은, 올해도 많은 지원자의 우수한 작품이 몰려 뜨거운 관심과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많은 작품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일정 정도의 문학적 성취를 이루고 있어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비심사 및 본심사 모두 무기명(블라인드) 심의로 진행되었고, 심의위원들은 약 2주간에 걸쳐 심의대상 작품에 대해 사전 전수검토 및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예비심사 과정에서는 언어에 대한 시적 긴장을 잘 갖추고 있는지, 주제 의식이나 세계관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 등에 주목하며 작품을 검토하였고, 전수검토 결과를 취합한 후 심의위원 전원 직접 대면하여 본심사를 진행하였다. 본심사에서는 먼저 점수 순위에 따라 후보작을 선정했고 이어 공정한 평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심의위원의 관점을 상호교차시키며 본격적으로 작품 논의를 이어갔다. 심의과정 자체가 치열한 토론의 장이었고, 이 과정을 거쳐 큰 이견 없이 고르게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들이 최종 우수작품으로 선정되었다.

지원작들이 다루는 제재와 주제, 사상 전개 등이 매우 다채로워서 오늘날 시쓰기의 최전선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자연, 사물, 생태, 유년, 인생, 일·노동의 현장, 가족, 역사, 세대풍자 등 다양한 일상 속 제재와 주제가 눈에 띄었는데, 특히 최근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나 문제 의식이 자연을 다루는 방식에도 변화를 주고 있음이 눈에 띄었다. 즉, 자연을 전통적 서정의 관점에서 예찬, 의인화, 송고미의 대상 등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의 인간중심성을 질문하거나 비판하는 관점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작품도 적잖이 눈에 띄어 흥미로웠다.

'나'를 벗어나지 못한 관념투나 독백체에 대한 아쉬움이 지적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구체적 삶으로부터 시의 언어를 길어 오르는 진지한 태도를 읽을 수 있었다. 특히 최종적으로 선정된 작품들은 제재에 대한 통찰과 깊이 있는 시선, 삶에 단단히 뿌리내린 시어들, 신선하고 다채로운 상상력 등이 주목받으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오늘날 시 장르가 시대에 발맞춰 갱신되고 있는 현장을 유감없이 확인할 수 있었다.

심의 과정에서는 '디카시' 등의 새로운 형식의 시에 대해 동일선상에서 평가할 수 있을지, 또 다른 심의 규정이 필요한 것 아닐지의 논의가 오가기도 했다. 이는 요컨대, 텍스트만으로 충분한 시와, 이미지(미디어)가 필요한 시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다. 디카시 등 새로운 시 형식은 이제 막 시도되고 있고, 그에 대한 미학적 논의는 미비한 상황이기에 본 사업에서도 당장 어떤 준거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시 장르의 심화와 확장 및 변화에 대해, 시를 읽고 쓰는 모든 분들 및 사업 지원 측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셔야 할 것으로 여겨졌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이 창작 지원 및 발표지면 확보뿐 아니라, 한국문학 저변 확대에 지속적으로 일임을 담당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더 많은 홍보에도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본 사업에 지원해주신 모든 시인분들께 진심으로 응원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시B분과 심의위원 일동

■ 2024년 문학 창작산실 발표지원 심의 총평(시C)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문학 창작산실 발표지원(시C 분과)
- 회의일시 : 2024년 5월 7일(화) 16:00
- 회의장소 : 서울 예술가의집

문학 창작산실 발표지원 사업은 우수 작가의 집필활동에 대한 소정의 정액지원과 함께 발표기회를 확대하고자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 분야에 지원된 건수는 933건으로 예년에 비해 대폭 늘었으며, 이중에 총 81건에 대한 선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심의 대상 건수 증가에 따라 총 세 개 분과로 진행된 시분야 심사 과정에서 우리 시C분과에서는 284건의 원고를 검토하여 최종 27건을 선정하였습니다.

대상 건수 대비 선정 건수가 10%에 불과한 만큼 심사위원회는 더욱 면밀히 작품들을 검토하였습니다. 대상 원고의 작가에 대한 정보는 심사평을 쓰는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철저히 무기명 원고를 대상으로 하는 심의 기준은 오직 '작품의 문학적 수준'입니다. 다만 문학의 여러 장르 중에서도 특히 시 장르의 특성상 '문학적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의 진폭이 크고 자의적일 수 있는 만큼, 사전 전수 검토 과정에서 심사 대상 원고들을 상대적으로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평가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다수의 원고들에 비해 조금이라도 더 뚜렷한 자신만의 형식이 있는 작품들, 선명한 주제 의식과 그것을 시적으로 참여하고 설득력 있게 형상화한 작품들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사전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세 명의 시C분과 심사위원들은 최종 선정 회의에서 개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추가 세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선정 회의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논의한 내용은 다수의 동점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경우도 최초의 심의 기준을 다시 한번 적용한 재검토와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전반적인 토론 과정에 나온 의견들을 다음과 같습니다. 상당히 길고 장황한 연술의 작품들의 경우, 나름의 시적 호흡과 패기에 흥미롭게 동참할 수 있는 작품도 있었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못한 폐쇄적인 작품들도 많았습니다.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의 경우는 현실의 페이지 소스를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현실과는 다른 상상의 질서가 흐르는 확장된 시공간을 구축해 나가며 그 속의 화자 나름의 시선과 연술들로 유의미한 이미지들을 생성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장황한 무의식적 연술 속에서 시적 주체조차 길을 잃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산문시 형식, 특히 길고 장황한 산문시 형식 자체가 바람직한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반면 현실과 일상을 시로 표현함에 있어 참여한 형식적 고민이 잘 느껴지지 않는 작품들도 있어 아쉬웠습니다. 시라는 장르 속에 있다는 자의식을 가지고 진정성 있고 담백한 연술들로 투명하게 시상을 전개하는 것과 개인사를 그저 기록하듯 재현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심사 과정을 통해 시적 개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제출된 작품 일곱 편만으로 시인의 시세계를 충분히 헤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충분한 역량을 가졌음에도 선정되지 못한 작품들이 많이 있어서 아쉬움이 큼니다. 사업의 호응이 매년 커지는 만큼 지원의 규모도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C분과 심의위원 일동

■ 2024년 문학 창작산실 발표지원 심의 총평(시조)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문학 창작산실 발표지원(시조 분과)
- 회의일시 : 2024년 5월 9일(목) 16:00
- 회의장소 : 서울 예술가의집

이번 심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4년 문학 창작산실 발표지원 문학 분야 중 시조에 해당한다. 이 사업은 우수 작가의 집필활동을 지원하고 작가들에게 발표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이 도입된 것은 2022년부터이다. 기존 1권의 발간을 지원하는 사업보다 적은 분량의 미발표 원고를 공개발표(온라인)하는 방식으로 1인당 200만원의 지원금(집행정산 불필요)을 지급하며 이번 발표지원에 책정된 2024년 사업예산은 6억원(300명 선정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조를 시로부터 독립하여 심의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심의 방식은 서류심의로, 작가들이 제출한 작품을 무기명 심의(블라인드)를 원칙으로 하여 진행하였으며, 심의 기준은 작가의 미발표 작품의 문학적 수준(100%)에 두었다. 즉 작품의 기획이 새롭고 독창적인가? 또는 새로운 형식이 돋보이는가? 작품이 작가의 주제의식을 잘 전달하고 있으며 그 수준 또한 높은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원칙하에 심의위원회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것들이 '시조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다른 시 양식과 차별화되는, 시조의 정체성을 잘 살리고 있는 작품이 선정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 심의위원들은 동의하였다. 이것은 시조가 우리의 전통을 잘 계승하면서도 '지금, 여기'의 현실과 시대정신을 잘 구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술위원회가 이러한 원칙과 내용이 심사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시조작가 2인과 평론가 1인으로 하였고, 이러한 구성은 심사 과정에서 적절하게 그 기능을 발휘하였으며, 특히 창작과 비평 과정에서 드러나는 현실적인 문제와 시조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등에 대한 논의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이번에 응모한 작품들에서 우리 심의위원들은 전반적으로 시조의 형식과 내용에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한 흔적들을 읽어낼 수 있었다. 시조만이 가지는 독특한 형식과 여기에 담긴 내용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전제되어야 시조의 정체성이 온전히 구현된다는 것은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간혹 이 작품이 시조인지 자유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둘 사이에는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둘 사이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시조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양식 혹은 장르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탐색이 있어야 하리라고 본다. 우리 작가들의 고뇌와 분투를 응원하면서 우리 시조가 K-미학으로 우뚝 서게 될 날을 기대해 본다.

시조분과 심의위원 일동

■ 2024년 문학 창작산실 발표지원 심의 총평(소설A)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문학 창작산실 발표지원(소설A 분과)
- 회의일시 : 2024년 5월 9일(목) 11:00
- 회의장소 : 서울 예술가의집

2024년 문학 창작산실 발표지원 사업은 우수 작가의 집필활동을 지원하고 발표기회를 확대하고자 22년부터 첫 도입된 사업으로 기존 한 권의 발간을 지원하는 사업보다 적은 분량의 미발표 원고를 온라인에 공개발표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작품은 온라인 플랫폼 문학광장(문장웹진_콤마), 카카오(브런치스토리)에 최소 1년간 의무적으로 공개합니다.

이러한 사업의 취지에 맞추기 위해서 작품 선정에 위한 심의 기준은 보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했습니다. 선정 작가의 작품은 향후 새로운 문학적 성과를 성취할 수 있는 참신한 소재와 과감한 형식적 실험과 노력을 가졌는지를 살폈습니다. 또한 선정된 작품이 독자나 다른 작가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현재의 우리 문학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도 고려했습니다. 무엇보다 선정 작품은 작품의 기획이 새롭고 독창적이어야 하고, 새로운 형식이 돋보여야 하고, 작품이 작가의 주제의식을 잘 전달해야 하고 그 수준도 높아야 함을 고려했습니다. 소설의 예술 작품으로서 의미는 독자들에게 다가가는 중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심의 기준을 바탕으로 사전검토와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분과별 토의를 거쳐서 최종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제출 작품은 무기명으로 작품만 놓고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미발표원고를 발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24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발표된 경우이거나 이전에 발표 예정인 경우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어디에도 공개된 적이 없고 다른 기관에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작품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무기명 심의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신청자를 알 수 있는 어떤 정보도 없었으며, 작품을 읽으면서 특정 작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심의 회피를 하였습니다. 제출된 작품이 다른 작가의 작품을 도용하거나 유사한 작품일 경우에도 심의에서 배제했습니다.

심의 위원들은 각 작품에 대해서 사전전수 검토를 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점수를 부여했으며, 사전전수 검토의 평균평점에 따라 순위를 매기고 동점이 있는 경우에는 작품을 중심으로 다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작품 선정에 위한 논의 과정에서는 구성방식과 주제가 유사한 작품이 많은 경우에는 독특한 주제를 드러내는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제출된 작품 중에는 가족사 중심의 서사가 많았는데 치매 노인 문제, MZ세대의 생활 방식을 드러내는 작품이 많았습니다. 이들 작품들은 동시대의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작품들 중에는 유사한 주제와 구성 방식을 벗어나 독창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이끌어가는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공적인 공간에서 최소 1년간 발표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지나친 폭력성이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작품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발표된다는 점에서 보다 넓은 대중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첨예한 문제를 다루었거나 비판적 논의가 제기될만한 작품은 부득이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웹진으로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창작물이 아닌 소설 작품이기 때문에 소설 미학의 완성도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편으로 써야 할 작품이 단편이 되었다든지, 소설의 구성방식이나 주제, 현실을 드러내는 방식에서 미학적 측면의 완성도가 다소 부족한 작품도 논의 과정에서 고려했습니다. 같은 주제나 유사한 현실의 상황을 드러낸 작품들은 독창성이 뛰어난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소설 작품의 미학적 측면을 잘 드러내는 작품을 고려해서 논의했습니다. 보다 엄정하게

하기 위해서 작품의 구성 방식을 바탕으로 얼마나 좋은 언어, 좋은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논의했습니다.

심의위원의 사전 검토를 통해서 취합한 작품들 중에서 동일한 평점을 받은 작품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작가들의 작품 역량이 뛰어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작품들을 모두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한 평점의 작품들은 앞의 심의 기준에 따라 논의를 거듭한 끝에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동시대의 작가들이 동시대의 현실을 유사한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소설의 미학적 측면인 언어와 문장을 최종 검토의 대상으로 했습니다.

심의 작품은 대체로 고른 수준의 작품들이었습니다.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을 넘어선 공간까지도 작가의 상상력이 닿아 있다는 점에서 소설의 다양성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소설다운 흥미와 재미를 느끼게 하는 작품들도 많았고, 색다른 소재를 담아내려고 하는 시도도 많았으며, 현실의 문제를 공유하려는 작품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장편에 담아내야 할 문제의식을 보다 깊이 다루지 못한 작품도 있었으며, 흥미로운 소재를 끌어왔으면서도 소설의 미학적 완결성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작품도 더러 있었습니다. 심의 대상 작품들은 소설이 현실의 재구성이라는 점에서 동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는 작품들이 많았다는 점이 돋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작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소설의 형상화에 노력하고 있어서 소설의 미학적 측면이 날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소설A분과 심의위원 일동

■ 2024년 문학 창작산실 발표지원 심의 총평(소설B)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문학 창작산실 발표지원(소설B 분과)
- 회의일시 : 2024년 5월 9일(목) 14:00
- 회의장소 : 서울 예술가의집

작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발표 기회를 넓히고자 시작된 이 사업이 벌써 3년차를 맞았다. 이번 공모사업 역시 작가들의 호응이 뜨거웠음을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었다. 응모작이 많다는 건 녹록지 못한 문학계의 현실에 아랑곳없이 작가들의 창작열이 여전히 활발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고무적이었다. 한편으로는 발표 지면을 얻지 못한 작품이 많아 서가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여 이 사업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기도 했다.

소설B분과는 모두 174편의 중단편과 18편의 장편소설이 심의 대상이었다. 소설의 소재가 늘 그래왔듯 이번 응모작도 전통적인 가족 서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개인의 가족사를 토대로 청년 실업, 독거생활, 학폭, 생태환경, 돌봄, 성소수자 문제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소재들이 잘 녹아 있었다. 역사소설에서부터 AI 시대의 미래가 담긴 과학소설까지, 이 나라에서 먼 이국땅으로까지, 시공간을 폭넓게 아우르는 배경의 작품도 있었다. 그중에서도 소재가 참신하면서 시의성과 작가의 문제의식이 잘 녹아 있는 작품들에 점수를 많이 주는 쪽으로 심의 방향을 정했다.

하나의 작품이란 생명체처럼 총체적인 것이어서 특정 시각에서 평가하고 순위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딜레마이기도 하지만 이 사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적정 기준을 가지고 작품을 선별할 수밖에 없었다. 평가는 절대평가로 이루어졌으나 한정된 예산에 따라 평균평점으로 순위를 가리게 되어 평가점수에 따라 동점이 다수 있었다. 그런 경우는 심의위원간 논의를 통해 선정권을 좁혀나갔다. 선정권은 비껴갔어도 선정작으로 손색없을 작품들도 있었다. 공모사업의 불가피한 선 가르기가 작품의 수준을 나누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응모자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 믿는다.

갈수록 척박해지는 문학, 출판 환경을 고려하면 어떤 지원도 아낌없이 모두에게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늘 예산은 한정돼 있어 취사선택이라는 불편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번 선정작의 행운을 비껴간 작품들이 이후에 더 좋은 지면과 발표의 기회가 오기를 바란다.

소설B분과 심의위원 일동

■ 2024년 문학 창작산실 발표지원 심의 총평(동시)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문학 창작산실 발표지원(동시 분과)
- 회의일시 : 2024년 5월 8일(수) 14:30
- 회의장소 : 서울 예술가의집

문학 창작산실(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발표지원 사업은 우수작을 창작하는 작가의 집필 활동을 지원하고 작품 발표 기회를 확대하는 일을 목표로, 심의에 선정된 미발표 원고에 대해 지원금과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발표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아동청소년문학 분야 중 동시 장르 심의대상에 오른 신청건수는 총 203건이었으며 이중 35건을 지원작으로 선정하였다. 심의는 신청작가에 대한 무기명 심의(블라인드)로 심의 위원 각자 예비심의 후 심의위원회의 대면 토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청작의 문학적 수준만을 심의기준으로 삼았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작품의 기획이 새롭고 독창적인가?' 또는 새로운 형식이 돋보이는가?', '작품이 작가의 주제의식을 잘 전달하고 있으며 그 수준 또한 높은가?'하는 질문에 바탕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는 동시 장르의 개념이 여전히 계속 변화하고 있음을 무엇보다 먼저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20여 년 간 거듭해 온 동시 창작 실험의 여러 양상을 다수의 작품에서 찾을 수 있었으며 이와 동시에 예전 창작 양상에서 변함없는 작품 역시 만날 수 있었다. 이러한 창작 양상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동시론의 혼재는 심의위원 간에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동시론에 바탕한 작품 평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난만한 상황 그 자체가 동시 장르의 현 주소이며, 바로 여기서 오늘날의 동시가 새로이 창작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어린이 독자'라는 이유로 관습에 머무르거나, '문학성'이라는 이유로 형식을 위한 형식에 묶여있는 창작 태도는 '어린이 독자'나 '문학성' 그 모두와 멀어지는 일이라는 점을 당부하고 싶다. 시가 사라져가는 시대에 어린이를 위한 시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길 바란다.

동시분과 심의위원 일동

■ 2024년 문학 창작산실 발표지원 심의 총평(동화)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문학 창작산실 발표지원(동화 분과)
- 회의일시 : 2024년 5월 8일(수) 11:00
- 회의장소 : 서울 예술가의집

우수 미발표작을 선정하여 독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건 작가와 독자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2024년 문학 창작산실 발표지원에 많은 작품들이 지원되었다. 작품 심의에 있어 이야기 내용과 구성이 참신한지, 작가의 주제의식은 잘 드러났는지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다.

전반적으로 다양한 소재와 구성은 동화와 청소년소설이 성장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여전히 현실동화(청소년 소설)가 대세였지만 환타지 작품이 많은 건 반가웠다. 여기에 역사와 SF, 환경 관련 작품도 소소하게나마 있어 읽는 재미가 있었다. 반면, 동화에 비해 청소년소설이 상대적으로 적어 아쉬웠다.

우선, 스토리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어른의 시선이 그대로 노출되는 작품들이 많았다. 또한, 작품성은 뛰어났지만 유명 작가의 작품을 모방한 듯해 새로움이 떨어졌다. 무엇보다 동화(청소년 소설) 속 주인공들은 왜 이다지도 불행한지, 극단적인 불행과 결핍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동화(청소년 소설)라고 현실을 외면한 채 마냥 즐겁고 행복해서도 안 되지만, 무조건 상처받고 결핍되고 불행할 필요는 없다. 실질적인 결핍을 겪은 과거의 어린이 보다 정신적인 결핍을 겪고 있는 지금의 어린이들이 불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부칠 필요는 없다. 동화가 가져야 할 미덕이다. 동화(청소년 소설)는 어린이가 현실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고 미래로 뚜벅뚜벅 나아가게 만들어야 한다. 어린이가 등장하고, 쉬운 낱말을 쓴다고 동화일 수 없다. 동화는 어른이 쓰지만 철저히 어린이 독자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어린이 마음에 가닿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성 있는 작품을 우선 선정하였다. 선정된 작품에는 어린이 독자를 배려한 속도감 있는 전개, 새로운 구성으로 책 읽기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주제가 드러나 울림을 주는 작품들이었다.

한 작품 한 작품 모두 소중하였지만,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한 작품이 많았다. 앞으로 다듬고 다듬어 '어디서 본 듯한' 작품이 아니라, 작가 본인의 색깔이 드러나는 작품이 완성되기를 기대한다.

동화분과 심의위원 일동

■ 2024년 문학 창작산실 발표지원 심의 총평(수필·평론·희곡A)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문학 창작산실 발표지원(수필·평론·희곡A 분과)
- 회의일시 : 2024년 5월 10일(금) 10:00
- 회의장소 : 서울 예술가의집

문학 창작산실 발표지원 사업은 미발표 우수작품을 발굴하여 발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학 작품이 독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작가들에게 발표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창작 역량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취지가 되리라 예상된다. 지난 해에 비해 응모 작품 수가 증가했으며, 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 또한 늘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심의에서 수필·평론·희곡A분과에서는 총 수필 23건, 희곡 7건, 평론 2건을 선정하였다. 심의는 미발표 작품의 문학적 수준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작품의 기획과 형식의 새로움, 주제 의식의 전달력 등을 고려하였다.

수필 분야는 응모작이 늘어난 것과 비례해 전반적으로 수준이 일정하고 평준화된 인상이었다. 일상의 순간을 포착해 문학적으로 사유하고, 읽는 이에게 삶을 새롭게 환기할 수 있는 기회로 선사하는 작품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평준화된 수준만큼 수필이 다루고 있는 주제의식이나 형식 자체가 일정한 유형으로 읽히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여행, 독서, 투병, 가족, 유년시절에 대한 경험을 다룬 수필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흔한 일상일 지라도, 문학적 사유를 통과하며 새로운 의미나 주제를 표현하는 수필,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에 그치지 않고 그 의미를 문학적으로 환원하는 수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평론 분야는 전반적으로 최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를 대상으로 그 새로움의 의미를 내용과 형식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평론이 어떤 변화의 지점을 주목할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었다. 다만, 평론적 글쓰기의 형식에 대한 새로움이 오히려 평론 문체의 기본 요건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다는 점과, 해석과 판단이라는 평론의 궁극적 가치보다는 작품 해설의 차원에 치중되어 있어서 평론의 깊이를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쉬움이 남았다.

희곡이 무대화를 전제한다는 것에는 이견(異見)이 없다. 그러나 이번 심사는 철저히 공모의 성격에 무게를 두었다. 응모된 30편의 희곡은 흥미로운 이야기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중 몇몇 작품은 지나치게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자극적인 소재 발굴에만 집착하여 작가의 주제의식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선정된 작품은 희곡의 문학적 수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제 남은일은 무대 위에서 관객들을 직접 만나는 일이다.

응모작이 늘어나 검토할 작품 역시 많았지만,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는 데에는 의견이 비교적 쉽게 모였다. 무엇보다도 어디에도 발표되지 않은 작품을 먼저 읽어볼 수 있었던 귀중한 경험이었다. 창작자들의 미발표 작품을 통해, 언제나 창작의 순간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작품이라는 결실로 마주할 수 있었다. 선정되지 못한 아쉬운 작품들도, 지면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 기약한다. 이번 사업으로 선정된 창작자들의 준비된 순간들이 많은 독자들에게 가닿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수필·평론·희곡A분과 심의위원 일동

■ 2024년 문학 창작산실 발표지원 심의 총평(수필·평론·희곡B)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문학 창작산실 발표지원(수필·평론·희곡B 분과)
- 회의일시 : 2024년 5월 10일(금) 15:30
- 회의장소 : 서울 예술가의집

문학 창작산실(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발표지원 사업은 우수작가의 집필활동을 지원하고 발표 기회를 제공하여 문학창작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정된 작가에게는 1인당 2백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작품은 온라인 플랫폼에 발표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2024년에는 지원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지원사업의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수필, 평론, 희곡 B분과>는 모두 174명의 작가가 제출한 미발표원고를 대상으로 무기명 심의(블라인드)를 하였는데 작품의 문학적 수준(100%)을 심의 기준으로 하여 공모원고 전부에 관한 사전전수검토를 진행한 후 분과별 심의 회의를 통해 선정작을 확정하였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전검토된 작품들 중에서 작가의 주제의식이 온전히 전달되고 독자들에게 공감을 얻는 동시에 문학적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들을 선정하고 그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고려하여 최종 심의를 진행했다.

수필은 주로 개인의 경험이나 생각을 진솔하게 쓰는 글이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 주제나 형식이 자유로운 만큼 까다롭고 어렵기도 하다. 주제나 형식이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기에 내용이나 표현 등에서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상투적인 글이 되어버린다. 개인의 경험에서 출발하더라도 삶에 관한 깊은 성찰이나 사회적 의미 또는 추상적 사유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이유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2024년 수필 응모작들 중에는 신변잡기에 머무르거나 선부른 메시지를 만들어내려는 의욕이 앞선 작품들이 보여 아쉬웠다. 작가와 독자가 연결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공감과 감동은 엄격한 자기검열과 반복적인 퇴고에서 나온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평론 분야에서는 문제의식과 현실 인식은 돋보이지만 정작 작품 분석의 깊이와 치밀함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응모작이 많았다. 평론보다는 학술 논문 성격에 가까운 글도 있었다. 특히 외국 문학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개념으로 소화해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 채 작품 분석 틀에 무리하게 끼워 넣는 경향이 자주 발견됐다. 특정 이론에 성급히 기대기보다는 자신의 시각으로 작품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능력이 평론에서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희곡의 경우에는 신생 지원제도(소액다건 지향으로 보이는)라 기대하지 않고 심사에 임하였으나, 기존 희곡 공모전에서 보이는 작품성 편차 폭이 그대로 나타나 놀라웠다. 뛰어난 작품의 경우, 다른 공모에서도 경쟁력이 있어 보였다. 평상시 기존 희곡 공모에도 도전하는 작가들이 이곳에도 응모한 것이리라. 그런 측면에서 기존 희곡 공모의 좁은 문을 창작산실 발표지원 제도가 확장 시킨 것 같아 유의미하게 생각되었다. 심의는 기본적으로 '극적 행동'을 통해 희곡을 전개 시키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공연을 전제로 한 희곡이 가지고 있어야 할 기초덕목이기 때문이다. 수작이라 부르기에 아쉬운 면이 있지만 위 기준을 통과한 일정 수준의 작품들은 대부분 선정되었으며, 이후 진행되는 온라인 공개를 통해 공연으로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

해가 갈수록 발표지원 사업에 관한 지원 작가들의 관심이 고양되고 있는 만큼 분야별로 우수한 작품들이 다수 지원될 수 있도록 분야별 배분 방향과 심의기준, 평가방식 등이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

수필·평론·희곡B분과 심의위원 일동